

---

# 중국어 외래어표기법 반성

## -원칙과 세칙의 문제-

엄익상 · 한양대학교 교수

---

### 1. 무엇이 문제인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등장한 지 벌써 몇 년이 되었다. 2007년 한 해 동안 한국인 350만 명이 중국을 방문했고, 중국인 82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한다. 한국의 외국 유학생 가운데 중국 학생이 가장 많고, 중국의 유학생 가운데는 한국 학생이 가장 많다.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활발해지자 중국어 외래어가 급속히 밀려들고 있다. 이들은 인명과 지명은 물론 식음료, 사회·정치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있다.

- (1) a. 우롱차(烏龍茶)
- b. 마오타이(茅台), 우량예(五糧液)
- c. 바링허후(八零後), 지우링허우(九零後)
- d. 장즈이(章子怡)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이 꼭 중국어 원음으로 수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자 문화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 더 많은 외래어가 한자음으로 통용된다.

- (2) a. 보이차(普洱茶)
- b. 수정방(水井坊), 공부가주(孔府家酒), 죽엽청주(竹葉淸酒), 소흥주(紹興酒)
- c. 소황제(小皇帝), 공한증(恐韓症)
- d. 주윤발(周潤發)

‘우롱차’는 중국 음으로 ‘보이차’는 한자음으로 정착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영화 『와호장룡(臥虎藏龍)』의 두 주인공의 이름이 한 명은 중국 음으로 다른 한 명은 한자음으로 소개되는 것이 중국어 외래어표기에 관한 우리의 현주소이다. 사실 외래어 원지음 표기 원칙에 대하여 저항이 가장 큰 언어가 중국어이다. 오랜 세월 동안 한자음으로 읽어 왔으므로 한자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편하다는 이유에서이다. 표기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한자음 표기는 고도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글쓰기에서 편의성보다 더 중요한 원칙을 위반한다. 그것은 일관성이다. 한글에서 외래어표기는 원지음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 한자 문화권인 일본의 인명과 지명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명과 지명만은 한자음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은 일관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다. 한자음도 본래 중국 음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본질적으로는 맞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늦어도 천몇백 년 전에 형성되어 한국어 음운체계 안에 이미 완전히 녹아 있고, 현재 중국 음과는 대부분 상당히 거리가 있는 한자음을 원지음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다행히 1997년부터 KBS와 조선일보 등 대형 언론 매체에서 중국의 인

명과 지명을 원지음으로 표기하면서 중국어 외래어도 원지음으로 정착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중국 대륙과 대만의 두 정치 지도자를 한자음으로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 |            |            |      |     |
|------------|------------|------|-----|
| (3) a. 胡錦濤 | Hu Jintao  | 후진타오 | 호금도 |
| b. 馬英九     | Ma Yingjiu | 마잉주  | 마영구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학계는 정작 중국어 외래어표기법에 관하여 아직도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편리한 한자음을 두고 왜 원지음으로 굳이 표기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논쟁의 핵심은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이다. 중국어 외래어표기법은 1985년 최영애·김용옥(김용옥 1985) 부부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 이듬해인 1986년 이와는 전혀 다른 정부안이 발표되었다. 이후 엄익상(1996)이 최·김안과 정부안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3의 표기법을 발표하기까지 10년 동안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97년 대형 언론사에서 중국의 인명과 지명 표기에 관하여 원지음주의를 채택하면서, 학계의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심소희(1999), 전광진(1999), 정원기(1999), 김영만(2000), 김태성(2000), 맹주억(2000), 임동석(2000), 배재석(2002), 장호득(2003), 정희원(2004), 김희성(2007, 2008), 도혜숙·배은한·장호득(2007), 강혜근(2008), 배은한(2008), 서미령(2008), 신아사(2008) 등 수많은 학자들이 이 주제에 대한 연구에 가세했다. 필자 또한 2002년에 수정안을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학술 발표와 논문(엄익상 2002ab, 2003, 2004ab, 2008ab)을 통하여 현행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정부에서 제정한 표기법이 있는데 학계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현행 표기법의 몇 가지 원칙과 세칙의 비현실성과 애매모호함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정부에서 제정한 현행 중국어 외래

어표기 원칙과 세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 2. 대원칙의 문제

외래어표기법 제1장 표기의 원칙은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대원칙인데 다음 다섯 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 (4)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표기법의 이러한 원칙 가운데, 제1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전제 조건이다. 제2항은 가능하면 지켜야 할 원칙이나, 현대 중국어와 현대 한국어는 1음운 1기호 대응 원칙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표기법은 p-와 f-, r-과 l- 등에서 이 원칙을 피해가고 있다. 제3항은 한국어의 음운체계를 감안할 때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

문제는 제4항 된소리 억제 조항과 제5항 관용어 인정 조항이다. 중국어 자음의 기본음이 된소리이기 때문에 이를 예사소리로 표기하면 중국어적 특성이 사라진다. 또 이미 굳어진 관용어의 범위가 애매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관용의 범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모든 용례를 따로 규정으로 만드는 일도 간단하지 않은 작업이다. 외래어표기법의 관용의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인명·지명 표기 원칙 및 세칙에서도 계속 제기된다. 관용에 따라서 관용어를 인정하지 않든지, 아니면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논의될 것이다.

결국 외래어표기법의 대원칙 가운데 중국어 표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4항이다. 사실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쓰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언어순화의 이유에서이겠지만, 중국어 표기에서 이는 한글의 표음 기능을 크게 제약하는 규정이다. 한글 자모로 세계의 많은 언어에서 유래된 외래어를 표기하고자 한다면 현행 자모를 최대한 활용하여도 모자랄 것이다. 특히 제2항의 1음운 1기호 원칙을 고려하면 된소리 사용을 굳이 억제할 필요가 없다. 외래어표기의 목적이 해당 외국어의 정확한 표음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표기했을 때 원음과 유사하지 않다면 굳이 중국 현대 음으로 표기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냥 한자음으로 표기해온 관행에 혼란만 야기하고 중국어를 잘 모르는 대부분의 화자에게 기억 부담과 불편만을 지출 뿐이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중국어의 한글 표기는 제4항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다음 중국 지명의 현행 표기법은 (5)와 같다.

(5) a. 北京	Beijing	베이징
b. 大連	Dalian	다롄
c. 廣東	Guangdong	광둥
d. 延邊	Yanbian	옌뱌

중국어 파열음 b, d, g(한어병음 표기)는 한글 자모 중에 ㅃ, ㄸ, ㄱ에 가장 가깝다는 음성학적 연구(전광진 1999, 최금단 2002)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중국어의 b, d, g는 한글의 ㅃ, ㄸ, ㄱ에 가장 가깝다는 사실은 청각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다. 大哥를 ‘다거’로 읽는 것보다 ‘따꺼’로 읽어 보면 선택이 훨씬 쉬울 것이다. 丹東을 정부안대로 표기하면 ‘단둥’이다. 그러나 실제 발음은 ‘똥똥’에 훨씬 가깝다. 한 음절에서 자음 폐쇄가 해지된 순간부터 모음 부분의 성대 진동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간을 VOT(voice onset time)라고 하는데, VOT는 유기음이 무기음보다 길고, 무성음은 유성음보다 길다. 맹주익·권영실(2007ab)의 음성학 실험에 의

하면 b, d의 VOT는 한국어의 된소리와 유사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어의 b, d, g는 한글로 ㅃ, ㄸ, ㄱ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다만 된소리가 2, 3성에서보다 1, 4성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분명히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맹주역·권영실(2007ab)은 음높이에서 한국어의 된소리는 중국어의 1, 4성과 유사하고, 예사소리는 2, 3성과 유사하다고 한다. 이들은 음세기상 4성은 된소리로, 저조인 3성이 보통소리와 유사한 음향적 특징을 지닌다고 한다. 그러나 b, d, g는 각각 성조와 상관없이 분명히 하나의 음소이므로 이러한 일부 음성학적 차이를 감안하여 도혜숙 외(2007)처럼 표기 방법을 된소리(1, 4성)와 예사소리(2, 3성)로 달리할 필요까지는 없다. 寶貝(寶貝)를 [바오뵘이]라고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순수 우리말에는 된소리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으며, 현행 중국어 표기법에서도 파찰음과 마찰음에서의 된소리는 인정하고 있다.

- |           |         |     |
|-----------|---------|-----|
| (6) a. 早禾 | Zaohe   | 짜오허 |
| b. 四川     | Sichuan | 쓰촨  |

따라서 한국어의 된소리와 유사한 자음을 많이 사용하는 중국어를 한글로 표기함에 된소리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치 '짜장면'을 된소리를 피한 표기법대로 '자장면'으로 규정하면서, '짬뽕'은 관용음을 인정하여 '잠뽕'으로 고치지 않는 모순과도 같다. 이런 점에서 엄익상안(2002ab)이 파열음에서의 된소리를 인정하는 것은 참고할 만하다.

- |       |           |     |      |
|-------|-----------|-----|------|
| (7)   |           | 정부안 | 엄익상안 |
| a. 北京 | Beijing   | 베이징 | 뻬이징  |
| b. 大連 | Dalian    | 다롄  | 따리엔  |
| c. 廣東 | Guangdong | 광둥  | 꾸앙똥  |
| d. 延邊 | Yanbian   | 옌뵘  | 옌뻬옌  |

### 3. 중국어 표기법 세칙의 문제

중국어 표기법에는 다음과 같은 세칙이 추가되어 있다.

(8) 제1항 성조는 구별하여 적지 아니한다.

제2항 ‘스, 쑤, 츠’로 표기되는 자음(ㄱ, ㅋ, ㆁ) 뒤의 ‘ㅑ, ㅓ, ㅕ, ㅠ’  
음은 ‘ㅏ, ㅗ, ㅛ, ㅜ’로 적는다.

정부안 세칙 제1항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만약 성조를 꼭 나타내어야 한다면 위첨자로 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중국어 로마자표기법인 한어병음 방안도 필요 시 성조 표기는 생략할 수 있으므로 성조를 표기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칙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제2항이다. 앞서 지적한 스, 쑤, 츠 자음이 ㅑ, ㅓ, ㅕ, ㅠ 같은 이중모음과 결합할 때 단모음 ㅏ, ㅗ, ㅛ, ㅜ로 바꾸라는 규정이다. 중국어를 중국어답게 발음하려면 개음 i, u, y를 정확히 발음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표기법은 일부 음절의 개음 i를 무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江澤民(Jiang Zemin)을 장쩌민으로 표기하는데, 江, 姜, 蔣씨의 Jiang과 張, 章씨의 Zhang을 모두 ‘장’으로 표기하므로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

(9) 江澤民	Jiang Zemin	장쩌민
蔣介石	Jiang Jieshi	장제스
姜育恒	Jiang Yuheng	장위형
張國榮	Zhang Guorong	장귀룡
章炳麟	Zhang Binglin	장빙린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개음(介音) i의 유무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

면 전자는 ‘지앙’ 또는 ‘장’ 정도로 표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안에서 ‘지앙’은 간략화 원칙 때문에 제외되었고, ‘장’은 ‘장’과 청각적으로 구별이 잘 안 된다는 이유에서 배제되었다. 한국어에서 스이나 츠이 이중모음과 결합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일상생활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커피 전문점 ‘자땡’도 있고 얼음과자 ‘조스 바’도 있다. 롯데칠성 음료는 ‘주스’로 표기하지만, 해태음료는 ‘쥬스’로 표기한다. 맛춤법은 물론 주스이다. 한국어에서 스과 츠은 ‘야, 요, 유’와는 결합하지 않지만 ‘여’와는 결합이 가능하다.

(10) 가져가다

만져보다

해가 졌다

힐러리가 졌다

설령 한국어에서 ‘자, 조, 쥬’가 잘 쓰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변별성과 유사성을 확보해야 할 외래어 한글표기법에서까지 이들 음절의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실제 정부안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중모음은 한국어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지만 현행 중국어 표기법은 이들을 포함하고 있다.

- |           |    |      |    |      |    |      |    |      |   |
|-----------|----|------|----|------|----|------|----|------|---|
| (11) biao | 박오 | diao | 다오 | liao | 랴오 | miao | 먀오 |      |   |
| bie       | 베  | die  | 데  | mie  | 메  | nie  | 네  |      |   |
| bian      | 벤  | dian | 덴  | lian | 렌  | mian | 멘  | nian | 넌 |
| diu       | 듀  | miu  | 뮤  |      |    |      |    |      |   |

따라서 엄익상안(2002ab)처럼 zha, cha와 jia, qia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이 변별력 확보 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



(12)		정부안	엄익상안
江澤民	Jiang Zemin	장쩌민	지앙 쨌민
蔣介石	Jiang Jieshi	장제스	지앙 지에스
姜育恆	Jiang Yuheng	장위형	지앙 위형
張國榮	Zhang Guorong	장귀룽	장 꾸오룽
章炳麟	Zhang Binglin	장빙린	장 뺩린

#### 4. 인명·지명 표기 원칙의 문제

정부안에는 (4)에 열거한 대원칙 말고도 외국의 인명과 지명을 표기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원칙을 제4장 인명·지명 표기 원칙에서 더 설정하고 있다.

##### (13) 제1절 표기 원칙

제1항 외국의 인명, 지명의 표기는 제1장, 제2장, 제3장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제3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언어권의 인명, 지명은 원지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원지음이 아닌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관용을 따른다.

제4항 고유명사의 번역명이 통용되는 경우 관용을 따른다.

필자는 (13)에 인용한 인명·지명 표기 원칙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 제1-2항은 규정대로 지키면 된다. 제3-4항은 관용음을 인정하는 조항이다. 원지음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면 이태리는 이딸리아로 스페인은 에스빠냐로 불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에서 그보다 더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영어식 명칭인 이태리와 스페인으로 부르고 있다. 영어식 명칭을 관용음으로 인정한 결과이다. 또 제4항은 미국, 일본, 중국, 대

만, 대서양, 태평양 등 한자식 번역 지명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으로 이 역시 유효하다.

문제는 제2절의 중국과 일본의 인명과 지명 표기에 관한 원칙이다. 우선 이 원칙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4) 제2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제1항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2항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3항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제4항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상하이/ 상해, 타이완/ 대만, 황허/ 황하, 도쿄/ 동경

우선 제1항은 과거 인명과 현대 인명을 구분하여 전자는 한자음으로 후자는 원지음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과거와 현재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학계에서 중국 근대와 현대는 대체로 1911년 신해혁명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다면 1911년 전후로 활동한 인물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1881년부터 1936년까지 살다간 魯迅의 경우를 보자. 1918년에 발표된 『광인일기』와 1919년 3월에 발표된 『孔乙記』는 노신의 작품이고, 1921년에 발표된 『阿Q正傳』은 루 쉰의 작품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는 루 쉰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 시대를 살다간 梁啓超(1873-1929)이나 胡適(1891-1962) 등

여러 사람에게 문제가 된다. 신해혁명은 오늘날 근대와 현대를 가르는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몇 백 년이 지나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오늘날 우리의 기준은 수백 년 뒤에 독자들에게 혼란만 줄 것이다. 또 일본인의 경우 수백 년 전 인물도 일본 음으로 읽고 있다.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쓴다. 글쓰기의 일관성 파괴이다.

제2항도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미 사라진 역사적 지명인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줄곧 사용되고 있는 지명인지 중국사를 전공한 학자가 아니고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많은 중국 지명을 일일이 확인하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현재 시안으로 불리는 西安이 과거에 長安이었다는 사실 정도를 아는 일반인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인명과 지명도 제3항에서 일본의 인명과 지명을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신·구에 대한 구분이 없어져야 한다. 규정은 간단할수록 좋다.

제4항의 문제점은 관용의 범위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물론 북경, 상해, 대만 정도야 누구나 관용 명칭으로 인정하겠지만, 더 나아가면 애매해진다. 한중수교 이후 교류가 늘어난 威海, 煙臺, 靑島를 위해, 연대, 청도로 관용적으로 부른다고 인정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지역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의 어감과 중국 山東 지역과 전혀 교류가 없는 사람이 느끼는 관용어의 범위는 확연히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인명과 지명 표기 원칙의 제2절 동양의 인명과 지명 표기 원칙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인명과 지명은 시간 차이와 관용의 범위를 무시하고 일본의 인명과 지명처럼 원지음으로 표기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익상안(2002ab)은 중국의 인명과 지명을 일본의 인명과 지명을 표기하는 원칙과 동일하게 시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원지음으로 표기한다.

(15)	정부안	엄익상안
長安 Chang'an	장안	창안
洛陽 Luoyang	뤄양	루오양
白居易 Bai Juyi	백거이	빠이 쥐이
鄧小平 Deng Xiaoping	덩샤오핑	땡 샤오핑

## 5. 바다·섬·강·산 등의 표기 세칙의 문제

중국의 지명을 원음으로 표기하는 일은 실제 이상의 규칙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러 가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안이 정하고 있는 세칙은 다음과 같다.

### (16) 제3절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세칙

제1항 '해', '섬', '강', '산' 등이 외래어에 붙을 때에는 띄어 쓰고, 우리말에 붙을 때에는 붙여 쓴다.

제2항 바다는 '해(海)'로 통일한다.

제3항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섬은 모두 '섬'으로 통일한다.

제4항 한자 사용 지역(일본, 중국)의 지명이 하나의 한자로 되어 있을 경우, '강', '산', '호', '섬' 등은 겹쳐 적는다.

제5항 지명이 산맥, 산, 강 등의 뜻이 들어 있는 것은 '산맥', '산', '강' 등을 겹쳐 적는다.

바다, 섬, 강, 산에 관한 정부안 세칙은 모든 언어권에 공히 적용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라 하여 특별히 예외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조항은 없어 보인다. 다만 산의 경우 중국 음 산과 한국어 산을 겹쳐 적어야 하므로 중복되는 기분이다.

- (17) a. 泰山      타이산 산  
       b. 黃山      후양산 산

그렇다고 중국어 표기법만 산을 하나 생략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일단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한편 엄익상(2002b:128)은 다음과 같은 세칙을 제시하였다.

- (18) a. 성조는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성모 b, d, g, z, s가 경성일 경우 보통소리 ㅂ, ㄷ, ㄱ, ㅈ, ㅅ으로 표기한다.(爸爸 빠바)  
       b. 성모 f, ch, r을 p, c, l과 꼭 구분해야 할 경우 해당 음절에 밑줄을 치거나(필기 시), 진하게(인쇄 시) 표기할 수 있다.(沈從文 선 총원, 선 총원, 선 총원)  
       c. 산, 강, 호수, 섬의 이름은 중국 음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산, 강, 호, 섬을 부기한다.(泰山 타이산 산, 黃河 후양허 강, 海南島 하이난파오 섬)  
       d. 중국어 고유명사가 처음 나오는 곳에는 한글로 중국 음을 표기하고 괄호 속에 한자를 병기한다.(앤 미앤(嚴棉)은 재미 중국어 언어학자이다.)

한글 표기법이 아무리 완전하여도 한글로만 표기하면 독자들은 무슨 한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 문장에서 처음 등장할 때 반드시 중국 음 뒤에 괄호를 치고 한자를 병기할 것을 권한다. 예를 들어, “쉬 선(許慎)은 『설문해자(說文解字)』를 편찬했다.”는 식으로 처리하라.

(18)의 세칙은 상당히 자세한 듯하지만, 실제 원음 표기를 하다보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필자(엄 2004ab, 2008a)는 다음과 같은 세칙을 추가하였다.

- (19) a. 인명은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성과 이름을 한 칸 띄어 중국 음을 한글로 표기한다.(李白 리 빠이)
- b. 지명은 현재 통용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 음을 한글로 표기한다.(長安 창안)
- c. 관용어 범위는 중국과 대만만 인정하고 성과 도시는 크기에 상관없이 중국 음을 한글로 표기한다.(吉林 지린, 北京 빼이징, 靑島 칭따오)
- d. 대학, 회사 등은 고유 명칭 부분만 중국 음을 한글로 표기한다.(南京大學 난징대학교, 歐亞集團 오우야그룹)
- e. 산, 강, 호수, 섬은 전체를 중국 음으로 읽고 산, 강, 호, 섬을 부기한다.(泰山 타이산 산, 黃河 후양허 강, 海南島 하이난따오 섬)
- f. 소수민족 지명도 중국 음을 기준으로 한다.
- g. 성조는 무시한다.

(19a)에서 성과 이름 사이에 한 칸 띄우게 한 것은 한어병음 표기법을 따라서이다. 현행 정부안처럼 성과 이름을 붙여 쓰면, 중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 어디까지가 성이고 어디부터가 이름인지 쉽게 알 수가 없다. (19b, c)는 정부안에서 관용의 이름으로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19d, f)는 정부안에는 없는 규정이다.

한편 규정이 아무리 자세해도 실제 표기를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필자가 독자로부터 받았던 질문 가운데 명확히 해 둘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조대의 표기와 책 제목이다. 중국의 조대는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처럼 이미 관용어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당시 국가의 명칭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를 조우나라, 친나라, 탕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로 바꿀 이유가 없다. 또 외국 책이나 문학 작품의 제목은 번역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경우 번역 또는 한자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0) a. 조대는 한자음으로 표기한다.(淸 청대, 청나라)

b. 서명은 번역 또는 한자음으로 표기한다.(『論語』, 『논어』)

## 6. 맺는말

정부가 제정한 현행 중국어 외래어표기법은 음절 수가 짧고 표현이 간단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간결한 표기와 외래어표기법의 대원칙을 중시하다보니 중국어 원음과 너무 다르게 들리는 음절 표기가 많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어의 된소리를 한글의 예사소리로 표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어에서 개음이라고 하는 활음 i가 ㅈ, ㅉ, ㅊ과 결합할 때 활음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도 한글표기법이 중국어 원음과 멀어지게 하는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외래어의 한글 표기가 해당 언어의 원음과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외래어표기법은 체계적인 표기에 그 목적이 있지 해당 외국어의 정확한 표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래어의 한글 표기가 해당 외국어 학습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한글 표기가 체계적이면서도 원음과 같거나 유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필자는 현행 정부안이 모음에 있어서 유사성은 차치하고라도 체계성마저 튼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이 글에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 논의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외래어표기법은 원지음과 꼭 같지 않아도 된다. 백번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한글에서 한 가지 자모로 나타낼 수 있는 중국어의 음소를 두 가지로 표기할 필요는 없다. 이는 (4)번의 대원칙 제2항 1음운 1기호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다. 엄익상(2008a)에서 딱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모음 o의 표기이다. 다음 예는 한어병음의 모음 o가 한글에서 ㅜ, ㅜ, ㅜ 세 모음으로 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1) a. 순음+o

bo, po, mo, fo 보, 포, 모, 포

b. o+ng

cong, dong, gong, nong, song, zhong 충, 등, 궁, 능, 송, 중

c. u+o

cuo, duo, guo, nuo, ruo, zuo 취, 뒤, 귀, 뉘, 뤼, 쥐

d. o+u

chou, dou, fou, hou, lou, mou 처우, 더우, 퍼우, 허우, 러우,  
머우

한어병음은 음소 기호로서 실제 음은 학자에 따라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 하나의 음소로 처리될 수 있고, 한글도 음성 문자가 아닌 음소문자이므로 모음 ㅛ로 통일해서 표기하는 것에 이론적인 결함이 있을 수 없다. 이를 여러 가지로 표기하는 것은 혼란만 가져다 줄 뿐이다. 이밖에도 엄익상(2008a)은 음의 괴리 문제를 더 지적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아무튼 간결성만 강조된 나머지 유사성은 물론 체계성마저 훼손된 현행 정부안은 이제 하루라도 빨리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개정 작업을 더 늦출 수 없는 이유를 외래어 한글표기법에 관한 애매한 세칙에서도 찾고 있다. 아울러 정부안의 세칙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 글은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간결하고, 체계적이면서 원음과도 유사한 중국어 외래어표기법에 관한 연구가 이미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 한어병음을 한글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표기법이 학계에 이미 제시되어 보급되고 있다. 로마자 한글표기법이나 외래어 한글표기법이란 어떻게 바꾸어도 문제가 있어서 세상 사람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은 없다고 생각하면 이 글을 비롯한 중국어 한글표기법에 관한 수많은 논의는 무의미하다. 그러나 보다 나은 방안으로 개정할 수 있다면 정부안이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 또 더 많은 개선안이 중구난방(衆口難



防)으로 쏟아져 나오기 전에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중국어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최선의 방안은 생각보다 그리 멀리 있지 않다.

## 참고 문헌

- 강혜근(2008), 「중국어 한글표기법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와 표기 방안」, 『제79회 중국어문학연구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189-218.
- 김영만(2000), 「현대중국어의 한글표기」, 『제34회 어학연구회 논문요지』, 서울대 어학연구소, p.149-157. 12/1.
- 김용옥(1985/1989),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민음사[통나무].
- 김태성(2000), 「중국어 한글표기법에 관하여」, 『중어중문학』 27, p.167-189.
- 김희성(2007), 「한국어 활음을 활용한 중국어 표기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김희성(2008), 「한국어 활음을 활용한 중국어 표기법 연구」, 『제79회 중국어문학연구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127-163.
- 도혜숙·배은한·장호득(2007), 「중국어 한글표기법 개선안」, 『중국학보』 55, p.83-107.
- 뚜안무 썬(2003[2005]), 『표준중국어음운론』 [제2판], 엄익상 외 번역, 서울: 한국문화사.
- 맹주익 (2000), 「중국어 교육용 한글 표음 방안」 『디지털 세대를 위한 중국어교육』 p.24-41. 10/7
- 맹주익·권영실(2007a), 「한중 파열음의 음성학적 대조 연구-한국어 ㅂ/ㅃ과 중국어 b에 대하여」, 『중국어문논총』 35, p.101-119.
- 맹주익·권영실(2007b), 「한중 파열음의 음성학적 대조 연구-한국어 ㄷ/ㄸ과 중국어 d에 대하여」, 『중어중문학』 41, p.81-104.
- 배은한(2008), 「중국어 한글표기법 개선안 재고」, 『제79회 중국어문학연

- 구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219-242.
- 배재석(2002), 「Cyber상의 중국어 표기법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19, p.241-261.
- 서미령(2008), 「중국어의 실용적인 한글표기법 소고」, 『제79회 중국어문학연구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165-187.
- 신아사(2008), 「중국어 한글표기법에 대하여」, 『제79회 중국어문학연구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103-126.
- 심소희(1999), 「한글-중국어 병음 체계의 연구」, 『한글』 245, p.161-189.
- 엄익상(1996), 「중국어 한글표기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중국어언어연구』 4, p.39-84.
- 엄익상(2002a), 「중국어 한글표기법 수정안」, 『중국어언어학 한국식으로 하기』, 서울: 한국문화사.
- 엄익상(2002b), 「중국어 한글표기법 재수정안」, 『중어중문학』 31, p.111-135.
- 엄익상(2003), 「중국어 한글 표기, 무엇이 문제인가?」, 『중국의 창』 2, p.80-92.
- 엄익상(2004a), 「현행 중국어 한글표기법의 장단점 비교」, 『말과 글』 99, p.67-79.
- 엄익상(2004b), 「세 가지 선택: 중국어 한글표기법」, 『중국어학의 주제탐구』, 서울: 한국문화사.
- 엄익상(2008a), 「현행 중국어표기법을 바꾸어야 할 이유」, 『제79회 중국어문학연구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69-91.
- 엄익상(2008b), 「중국의 인명·지명을 원음으로 표기해야 할 이유」, 『2008년 중국인문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7-14.
- 임동석(2000), 「중국어 한글 표기의 실제와 문제점」, 『중국어문학논집』 13, p.445-469.
- 장호득(2003), 「중국어 한글표기법의 원칙과 한계」, 『중국어문논역총간』

11, p.233-262.

전광진(1999), 「중국어 자음의 한글표기법에 대한 음성학적 대비 분석」,

『중국문학연구』 19, p.347-375.

정원기(1999), 「중국어 고유명사의 한글표기법에 관한 소견」, 『중국어문  
학역총』, 11, p.7-12.

정 진취연(2002[2007]), 『현대중국어 생성음운론』 [수정본], 엄익상, 서  
울: 학교방.

정희원(2004), 「외래어표기법의 중국어 표기 규정과 관련하여」, 『제24회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세미나 발표 및 토론문집』, 중국 상하이,  
p.49-52.

최금단(2002), 『중국어와 한국어의 자음 대조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  
학위논문.